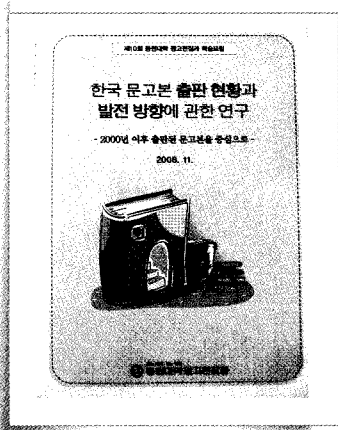


##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논문발표

# 한국 문고본 출판현황과 발전방향



조사대상 문고본 중 절반이 넘는 도서(51%)가 1쇄에 그치고 있으며, 10쇄 이상 발간한 문고본은 36종으로 2.7%에 불과했다. 분야별 분포에서는 일반 도서와 달리 문학보다 사회과학 분야의 비율이 높았으며 국내 저자의 비중이 외국 저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원대학 광고편집과(교수 부길만·금창연)는 최근 제10회 학술포럼의 일환으로 '한국 문고본 출판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2000년 이후 출판된 문고본을 중심으로 작성된 이 논문은 한국 문고본의 출판실태를 조사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논문은 문고본 출판사의 기획 책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문고본 출판기획의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문고본 출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20종 이상의 문고본을 출판한 14개 출판사에서 나온 17종류의 문고본 중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303종을 대상으로 중쇄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절반이 넘는 도서(51%)가 1쇄에 그치고 있으며, 10쇄 이상 발간한 문고본 도서는 36종으로 2.7%에 불과했다. 문고본 도서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일반도서와 달리 문학보다 사회과학 분야의 비율이 높았으며 국내 저자의 비중이 외국 저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여러 번 인쇄한 문고본 도서는 '한국의 정체성(34쇄, 탁석산 저)'이 1위를 차지했으며, 'CEO 징기스칸(30쇄, 김종래 저)', '한국의 주체성(21쇄, 탁석산 저)'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5쇄 이상 발간한 도서를 가장 많이 보유한 출판사는 책세상(36종), 김영사(23종), 시공사(20위)가 1, 2,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고본 도서 및 출판사의 상위권을 2000년 이전(1970~1999년)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달라진 실태를 알 수 있다. 즉 2000년 이전의 경우, 문고본 도서 1위는 무소유(89쇄, 법정 저), 2위 수필(47쇄, 피천득 저), 3위 서른 잔치는 끝났다(38쇄, 최영미 저)순이고, 5쇄 이상 발간한 도서를 보유한 출판사의 경우도 1위 대원사(155종), 2위 범우사(72종), 3위 창작과 비평사(77종)순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조사한 도서들과 출판사들은 모두 2000년 이후에도 꾸준히 발간되고 활동 중이어서 전체 상위권 문고본 출판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참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논문은 문고본 출판의 발전 방향을 기획·유통·편집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획 부문을 살펴본다. 첫째, 문고본 출판 분야를 다양하게 넓혀야 한다. :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고본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문고본 판매수가 높지 않았다.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문고본 홍보의 다양화이다. : 문고본은 일반적으로 언론사 홍보나 신문 광고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자들은 문고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홍보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에 저자들을 폭넓게 발굴해야 한다. :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문고본에서는 기존 필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신에 저자를 기용함으로써 기존 필자들과 다른 내용과 견해를 펼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유통 부문을 살펴본다. 첫째, 서점에 문고본 코너를 만드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서점에 가면 문고본 코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극소수의 문고본만 비치되어 있다. 이에 온·오프라인 서점에 문고본 코너를 따로 만들어 독자의 관심을 문고본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고본을 손쉽게 살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많다. 하지만 문고본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서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다양한 판매 구조를 개척해 문고본이 독자들에게 낯선 도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편집 부문에 대한 발전 방향이다. 첫째, 표지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 문고본은 대체로 처음 출판되었을 당시의 표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문고본을 접하는 독자에게 시선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문고본에 양장본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문고본의 커버는 소프트 커버가 대부분이다. 아니 모두 소프트 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자들의 기호는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다양한 커버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